

■ S-207 ■

다혈관 병변에서 관상동맥 질환 혈관에 약물 용출 스텐트를 중첩 시술한 환자의 재협착에 관여한 인자와 임상결과

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,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심장질환 특성화 연구센터

*오경수, 정명호, 김인수, 박수환, 김정훈, 이두환, 박인철, 김남윤, 박진희, 이재훈, 정영숙, 박현아, 황승환, 이민구, 고점석, 심두선, 박근호, 윤남식, 홍영준, 김주한, 안영근, 조정관, 박종춘, 강정채

배경: 최근에 다혈관 병변과 당뇨병 환자에서는 관상동맥 우회술 대신에 약물 용출 스텐트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술이 초기 합병증 및 재협착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서 관상동맥 중재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다혈관 병변의 관상동맥질환자에서 약물 용출 스텐트를 중첩 시술한 후 비재협착(I군)과 재협착(II군)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적 특성, 관상동맥병변 및 관상동맥 중재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. **방법:** 2007년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전남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에서 다혈관병변의 약물 용출 스텐트를 중첩 시술 받은 후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은 환자 204명 [비재협착군 I군(155명, 60.73±10.85세), 재협착군 II군 49명, 63.0±10.37세)]을 대상으로 하였다. **결과:** 대상 환자 204명 남녀비(149:55, 평균나이(61.3±10.8세))에서 혈관 내 재협착은 49예 (24.0%)가 관찰되었다. 두 군에서 임상적 진단명으로 STEMI [(24예(15.5%) vs. 6예(12.2%)]이었고, NSTEMI [35예(22.6%) vs. 6예(12.2%)]이었고, 불안정형 협심증 [51예(32.9%) vs. 22예(44.9%)]이었고, 안정형 협심증 [44예(28.4%) vs. 15예(30.6%)]로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병변의 위치에서 좌전하행지 [100예(64.5%) vs. 30예(61.2%)], 우관상동맥 [41예(26.5%), 17예(34.7%)], 좌회선지 [10예(6.5%), 1예(2.0%)], 좌주간지 [9예(5.8%) vs. 2예(4.1%)]로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두 군에서 스텐트 굵기는 [155예(3.1±0.25 mm) vs. 49예(3.0±0.26 mm)], 길이는 [155예(57.2±12.8 mm) vs. 49예(57.5±13.1 mm)]로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인 흡연은 [46예(29.7%) vs. 17예(34.7%)], 당뇨병은 [53예(34.2%) vs. 19예(38.8%)], 고혈압 [72예(46.5%) vs. 27예(55.1%)], 고지혈증 [24예(15.5%) vs. 3예(6.1%)]로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이면성 심초음파로 측정된 좌심실 구혈률은 [155예(60.2±11.9%) vs. 49예(61.9±10.4%)]로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하지만 두 군에서 단일 혈관 중첩 시술환자 [78예(50.3%) vs. 14예(28.6%), $p=0.008$]로 재협착률이 낮았고, 다혈관과 중첩 시술환자 [77예(49.7%) vs. 35예(71.4%), $p=0.008$]로 협착군에서 재협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. **결론:** 다혈관 병변에서 관상동맥 질환 혈관에 약물 용출 스텐트를 중첩 시술한 환자에서 재협착률에 관여하는 인자로 나이, 성별, 임상진단명, 위험인자, Target vessel, 좌심실 구혈률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다만 단일 혈관 중첩 시술환자에 비해 다혈관 과 중첩 시술환자에서 재협착률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.

■ S-208 ■

Change of Plasma Markers in a Porcine Model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

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,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심장질환 특성화 연구센터

*임경섭, 홍영준, 다이스케 하지노헤, 쿠쉬드 아메드, 정명호, 황승환, 김정하, 고점석, 이민구, 박근호, 심두선, 윤현주, 윤남식, 김계훈, 박형욱, 김주한, 안영근, 조정관, 박종춘, 강정채

Background: Plasma analysis is a cardiac injury marker used to assist diagnosis of an acute myocardial infarction. **Objectives:**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 of plasma markers in a porcine model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. **Methods:**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as made by balloon occlusion (3.0*20mm) in middle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for 35 minutes. Plasma before experiment (control group, n=8), 24 hours passed after induction of myocardial infarction (study group, n=8) were collected in same pig. **Results:** BU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th group (10.07±2.51 mg/dL in control group vs. 14.54±6.38 mg/dL in study group, $p=0.151$). CR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th group (6.21±2.48 mg/L in control group vs. 7.97±1.78 mg/L in study group, $p=0.159$). GP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th group (40.10±17.32 U/L in control group vs. 95.25±66.73 U/L in study group, $p=0.114$). GO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tudy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(33.55±8.86 IU/L vs. 118.62±34.26 IU/L, $p=0.002$). LDH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tudy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(968.69±94.23 U/L vs. 2515.42±559.67 U/L, $p=0.001$). CK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tudy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(696.98±274.47 IU/L vs. 7757.07±6023.28 IU/L, $p=0.034$). CK-MB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tudy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(984.51±379.45 ng/mL vs. 6265.56±2116.06 ng/mL, $p=0.004$). **Conclusion:** In 24 hours passed after induction of myocardial infarction, GOT, LDH, CK and CK-MB was significantly elevated in a porcine model.